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조직화에 관한 요인

-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

최 중 혁*
이 연*

I. 서론

1. 문제제기

2000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서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구분하여 종전에 비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계층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및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재호, 2001).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만 살펴 보아도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방법론의 강화가 뚜렷이 제기되고 있다(S.Ramon,1991; 阿部志郎大, 1993).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 시스템이론이나 생태학적이론의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도시연대에서 최근 '마을만들기'¹⁾ 사례공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발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과정

1) 정석은 '마을만들기' 용어의 개념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을'이란 물리적 측면의 '생활환경'이외에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마을공동체', '마을문화'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만들기'란 생활환경을 잘 살피고, 이웃과의 친교를 이루고, 생활공동체를 통한

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접근들이 각처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dosi.or.kr). 예를 들면 문화거리만들기, 환경친화적인 마을만들기 등은 순수하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이 새롭게 변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처음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중심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적극성과 창의성 그리고 추진력에 의해서 초기의 소규모 사업이 점진적으로 마을전체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조직화가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반해 주로 지역사회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의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90년대 초반의 주변상황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산계층의 유입이 보다 확대되고, 이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외와 주변의 일반아파트단지와의 무형의 계층경계가 보다 확연해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영구임대아파트지역주민에게 적지않은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심리적 소외감을 심화시키고, 청소년비행, 범죄, 음주, 슬럼화 등 각종 새로운 지역사회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나 관심과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의 변화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의 대처능력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형성, 그리고 능력개발(empowerment)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전략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현장의 사례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 또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주민조직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전략이나 그 전개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이론적인 고찰이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요인탐색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박태영,2000; 김미윤,2000; 김보연,1994; 김종해,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따

건강한 주민육성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는 '삶터가꾸기', '공동체이루기', 그리고 사람만들기' 등을 의미한다(정석, '마을단위도시계획 실현기본방향(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뜻한 우리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조직화사업의 진행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서 주민조직화사업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관심은 주민조직화 사업의 성공여부나 그 결과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를 밝히는 일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 그 보다는 주민조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리더 및 참여자의 반응, 그리고 참여의 한계점 등 역동적인 활동문맥(action context)의 발견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2. 연구목적

본 보고서는 S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²⁾를 위해 주민복지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이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사업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이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참여를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왔으나 그 성과는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생활조건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조직화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의 특성을 고찰하고
- (2) 주민조직화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주민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 (3)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주민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은 질적조사분석으로서 연구자들이 현장활동에 참여하여 관찰

- 2) '더불어 사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사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공헌하여 온 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이와 같은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교육, 주민조직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기록한 현장노트를 토대로 주민조직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주민조직화의 의의

주민조직화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공통의 지역생활 니드와 문제의 충족·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岡村重夫, 1974).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노력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며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와 협동·협력을 도출해내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생활주체자인 주민들은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를 자신들의 힘으로 개선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 받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공동체 회복노력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주민조직 차원의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전개되기도 하며 때로는 역량있는 리더의 헌신적인 역할에 힘입어 결실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사회 환경은 개개인의 또는 일부의 산발적인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하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경쟁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상황은 개개인의 또는 일부의 문제 해결노력이나 생활환경 개선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며 지역사회의 전주민의 공동노력을 필요로 한다. 주민조직화는 주민 개개인의 작은 힘을 결집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협동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인 것이다.

2. 주민조직화의 목적

주민조직화는 생활의 장인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주민조직화는 크게 두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지역사회내에서 주민의 시민적 연대를 통해서 주민이 직면하는 제반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목표이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소원화에 대응해서 주민간의 일

차적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西田芳正, 1995).

주민조직화를 지탱하는 이념은 공생의 원리, 공익개념, 주민주체, 주민의 자립에 입각한 공동-협조-연대의식, 사회통합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토대는 개개인들이 호혜적인 관계를 갖고 상호협력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역주민의 합의, 주민간의 인간적·지역적 연대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다(鈴木五郎, 1981). 주민중심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복지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주체·주민참여형 복지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의 고양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Weil & Gamble(1995:a)에 의하면 주민조직화를 통한 Community Practice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 (1) 시민 및 시민단체의 조직기술과 능력의 개발
- (2) 지역사회내의 사회계획수행 가능성의 증대와 종합화
- (3) 사회적·경제적 투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결
- (4)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활동
- (5)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계획과 실천

보다 구체적으로는 (1)생활의 질 개선 (2)지역사회의 이익 대변 (3)인간적 사회·경제개발 (5)서비스의 통합화 (6)정치적·사회적 행동 (7)사회정의의 구현과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주민들의 질적인 삶을 추구한다.

3. 주민조직화의 형태

1) 주민참여의 형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은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는 외부의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Perlman과 Gurrin(1972: 이미윤, 2000, 재인용)은 지역사회개발을 논하면서 주민들의 자조활동을 개발하고 그 활동에 광범한 참여를 조장하여 그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삶의 개선을 꾀하는 집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참여에 대하여 최종혁 교수(2000)는 '지역주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자발적인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성과 적극성을 갖고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느냐에 따라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다. 鳥越 교수는 주민참여를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크게 제도적 참여, 목적적 참여, 가치적 참여의 3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였다(최종혁, 2000).

(1) 제도적 참여 : 시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서의 참여로서 행정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특정 도시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이에 해당한다.

(2) 목적적 참여 : 지역의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당장의 어떤 이익이나 손해의 발생을 계기로 참여하는 것으로 시민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형태이다. 재개발지역의 보상운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운동, 러브호텔 신축허가 반대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 가치적 참여 :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형태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

주민참여는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민조직은 주민 각 개인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주민조직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김해동(1985)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1) 종합복지조직 : 반상회, 자치회, 입주자대표모임, 주민자치회 등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 (2) 계층조직 :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조직
- (3) 기능조직 : 자율방범대와 같은 지역의 특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민조직
- (4) 취미조직 : 스포츠, 문화예술분야 등 같이 즐기고 활동하는 주민모임
- (5) 직능조직 : 번영회와 같이 경제적 이해가 공통되는 사람끼리의 조직
- (6) 친목/사교조직 : 혈연, 지연, 학연을 근간으로 하는 동향조직, 동창조직 등
- (8) 기타 문제별 주민조직 : 특별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2) 지역조직화

전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コミュニティ研究會, 1973. 8.: 최창호, 1980, 재인용)

(1) 다원적 조직화 패턴 : 지역사회의 전 주민을 대표하는 단일조직을 형성하지 않고 기존의 개별집단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은 각 개별조직들의 사업이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으나 집단의 난립과 주민의 무성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협의적 조직화 패턴 : 전술한 다원적 조직화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각 주민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두어 해당 지역사회내에서 실시되는 각 조직의 사업을 협의조정하게 하는 패턴이다. 협의회는 각 조직의 사업간의 협의에 그치며 각 조직의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지 않는다.

(3) 연합적 조직화 패턴 : 각 주민조직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한 모든 사업을 조정·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적 조직을 두는 패턴이다. 각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 연합회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4) 종합적 조직화 패턴 : 연합적 조직화에서 더 나아가 종합조직 자체의 기획 및 집행권을 인정하고 자체적인 집행부서를 두며 각 개별조직은 그 종합조직의 산하 전문단체로 존립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은 종합조직의 주체적 사업하에 각 주민조직의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주민조직의 일원화에 가까우나 각 주민조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원적 조직화와는 다르다.

Ⅲ. 연구방법 및 프로그램 진행

1. 연구방법

1) 연구기간 : 2000년 3월 ~ 12월(10개월)

2) 연구대상지역 : 서울 S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서 이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은 다년간의 지역사회개발사업 경험에 의한 주민조직화의 기술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민조직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의지를

갖고 삼성재단의 재정적 지원하에 주민조직화를 시도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 분석을 위한 자료는 4명의 연구자들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연구대상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지도자들과 주민들, 복지관의 실무자들에 대한 면접조사와 복지관의 대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관찰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 조사방법은 현상학적 시각(phenomenological perspective)에 입각한 조사방법으로 H.G.Blumer가 언급한 정사(精査)와 탐사(探査)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생활문맥(life context)에 대한 의식, 복지관과 주민복지위원회(토착리더)와의 상호작용, 주민복지위원회 리더의 성향과 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은 데이터대화형 이론(grounded theory)을 활용하여 현장노트(field notes)에서 기록된 행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호화(coding), 카테고리(category)의 구성, 카테고리의 연결, 중핵카테고리의 발견, 메모(memo), 도해(mapping), 성문화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2. 주민조직화를 위한 프로그램

1) 프로그램명 :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우리마을 만들기

2) 프로그램 목적 : 지역주민을 조직화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연대감과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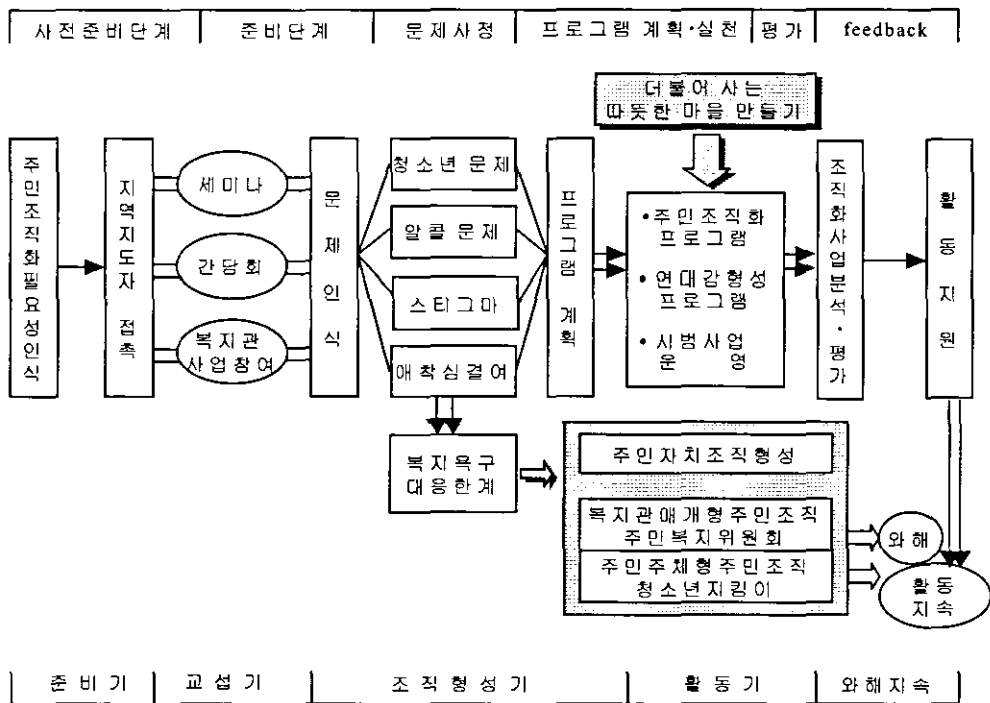
3)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

IV. 질적분석 결과

1. 주민조직화 추진과정

본 지역에서 주민조직화를 시도한 복지관은 다년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해왔던 법인의 경험을 토대로 주민조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직화작업을 추진하

였다. 복지관에서는 주민조직화를 추진하기 전에도 개방적으로 주민대표들이 복지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복지관의 사업운영계획이나 사업결산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모임에 주민대표들을 참여시키고 재단차원의 세미나나 교육활동에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왔다. 이와 같은 복지관의 대지역사회 접근방식은 다른 복지관과는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지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복리를 높이는 자발성, 이타성, 독립성 등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조직화를 추진하였다. 복지관이 주민조직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을 질적분석 결과를 통하여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 주민조직화사업 총괄진행도

2. 주민자치조직의 형태

주민조직화과정에서 형성된 주민자치조직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기존의 통반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토착적인 리더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복지관이 주도한 복지관매개형 주

민조직이며 또 한 형태는 청년회라는 단일조직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의 현안문제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민주체형 자치조직이다.

양 조직의 구성과 활동에는 모두 복지관의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자치조직의 필요성 인식, 조직의 목표, 구성원의 성격, 복지관의 개입정도, 복지관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관매개형 주민조직인 주민복지위원회는 복지관이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하에 구성된 조직이다. 이와는 달리 주민주체형 조직인 청소년지킴이는 주민들(청년회)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청년회라는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청소년문제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갖고 있다.

비교항목	명칭	주민복지위원회	청소년지킴이봉사단
조직의 목표		더불어사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청소년문제 해결
조직형성의 주체		복지관의 의지에 의한 조직	주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조직
조직형성의 기반		복지관 스태프의 기획 및 개입능력 재원확보 지역지도자들의 복지관사업 참여경험	조직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의지 청년회의 문제해결 경험 청년회조직에 대한 소속감
조직성원의 자격요건		통반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기존의 토착적인 리더	청년회 회원
조직 리더와 성원과의 관계		리더의 카리스마적 권위에 의한 추종	공통경험을 토대로 한 동질감 공유
복지관과의 관계		암묵적 상호동등한 협력관계	독립적 협력관계
복지관의 개입정도		복지관의 전적인 지원	측면적 지원

< 표 1 > 주민자치조직의 특성

3. 주민자치조직의 와해와 지속

주민조직화과정에서 나타난 두가지 형태의 주민조직 중 복지관 매개형 주민조직인 주민복지위원회는 와해되었으며 주민주체형 주민조직인 청소년지킴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주민복지위원회의 와해요인

주민복지위원회는 조직된 후 이렇다 할 활동도 하지 않은 채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조직 구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주민복지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화에 노력해왔던 복지관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구성원들 자의에 의해 스스로 해체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복지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체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복지위원회의 와해 요인을 크게 범주화하면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주민복지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요인 (2)리더의 성향 (3)리더의 성향과 관련하여 형성된 복지관과의 긴장관계와 복지관의 조직화전략 및 지원능력의 한계 (4)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들 수 있다.

(1) 주민복지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요인

①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원의 목적의식 결여

주민복지위원회의 목적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있다. 주민복지위원회는 복지관과 기존의 지역사회 리더들과의 사이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일치된 의견하에 조직되었다. 그러나 주민복지위원회의 구성이 복지관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역시 복지관에서 제시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느냐는 미지수이다. 비록 초기에는 이와 같은 목적에 서로 동조하여 주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민복지위원회 목적은 대표의 사적인 목적으로 대체되었다. 리더는 주민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의 확장과 복지관에 대한 우위의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태를 보임으로써 주민복지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은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② 실제적인 지역복지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위원회의 정체성 확립 실패

조직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응집력이나 소속감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정체성은 조직이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가면서 성원들의 조직활동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복지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은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연수

회와 간담회의 참여 이외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전혀 없었다. 즉 주민복지위원회의 목적을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복지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민복지위원회의 존재는 명목적인 존재일 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차원에서의 실제활동이 없는 단순한 자기들만의 모임으로서 친목모임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었다.

③ 주민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원들의 대가 요구

주민복지위원회의 활동은 성원들이 자신의 생활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주민 거의 모두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계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사고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제적 수입을 기대하며 대가를 요구한다.

(2) 리더의 성향

주민복지위원회는 주로 대표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리더는 조직 성원에 대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추진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일의 일관성이 없고 흐지부지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및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주체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은 조직활동의 계획과 활동수행에 있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직성원에 대해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는 대표로서 조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3) 주민복지위원회와 복지관과의 균형있는 협조관계 형성의 실패

주민복지위원회가 와해된 요인중의 하나는 복지관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복지위원회는 복지관의 주도하에 조직되었으나 복지관은 주민복지위원회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주민복지위원회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에서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하는 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복지관의 이러한 노력은 성

공하지 못하였다.

주민복지위원회와 복지관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주민복지위원회 활동에 있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이다. 복지관과 주민복지위원회는 지역활동에 있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표방하면서도 양자는 다른 의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관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체적 주민복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복지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표와의 관계형성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하여 주민복지위원회의 리더는 주민복지위원회를 이용한 자기기득권 확보유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는 복지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지지세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양자는 외적으로는 상호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복지관과 대표를 비롯한 주민복지위원회사이에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³⁾ 양자간의 긴장갈등과 상호견제심리는 양자가 모두 깊이 인식하고 있다. 상호관계에서 복지관으로서는 대표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 주민복지위원회의 대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① 복지관의 대응전략

복지관 특히 주민복지위원회를 상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주민복지위원회에 대해 그들의 대표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소수 주민에 의한 대표들로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우선시하며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주민들일지라도 의식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복지위원회의 대표가 복지관을 불신하고 은근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복지관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주민복지위원회의 조직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대표가 복지관과 주민복지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복지관으로서는 대표를 교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복지관의 영향력의 범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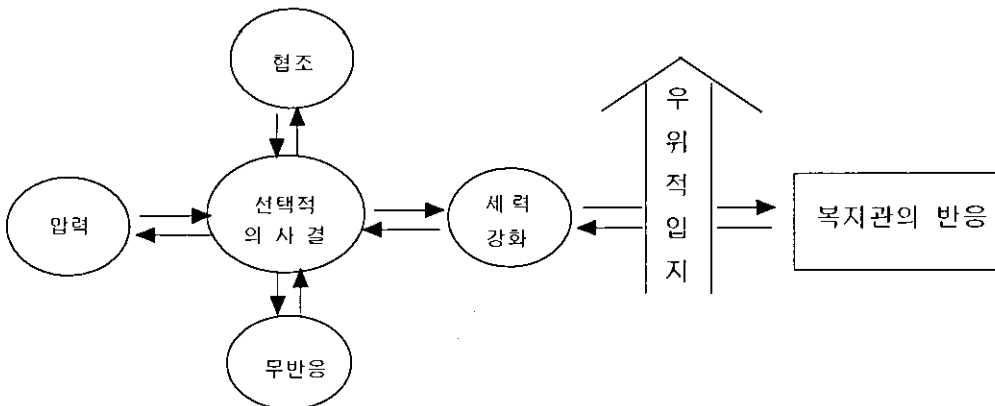
3) 그런데 주민복지위원회를 이해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복지위원회 성원들과 복지관이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여기서 긴장관계는 주로 복지관과 대표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주민복지위원회의 리더는 조직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리더가 복지관에 대해 어떠한 압력나 요구를 행사하게 될 때 주민복지위원회 성원들은 그의 주장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별성원들과 복지관의 관계는 원만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관의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성원들이 발견된다.

넘는 일이다. 사회복지사 또한 주민복지위원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복지관에 대한 리더의 대응전략

복지관에 대한 리더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그는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일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일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의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경우 그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위 지역주민을 위한 일에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복지관에 대해 집요하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행동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관에서 그를 견제하려는 특성의 반응을 보일 경우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관에 대해 압박을 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이 리더의 복지관에 대한 대응방식은 다양하며 일정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리더의 행동특성을 다시 분류해보면 ㉠협조 ㉡무반응 ㉢선택적 의사결정 ㉣세력강화 ㉤압박으로 구분된다.



< 그림 2 > 주민복지위원회 리더의 대복지관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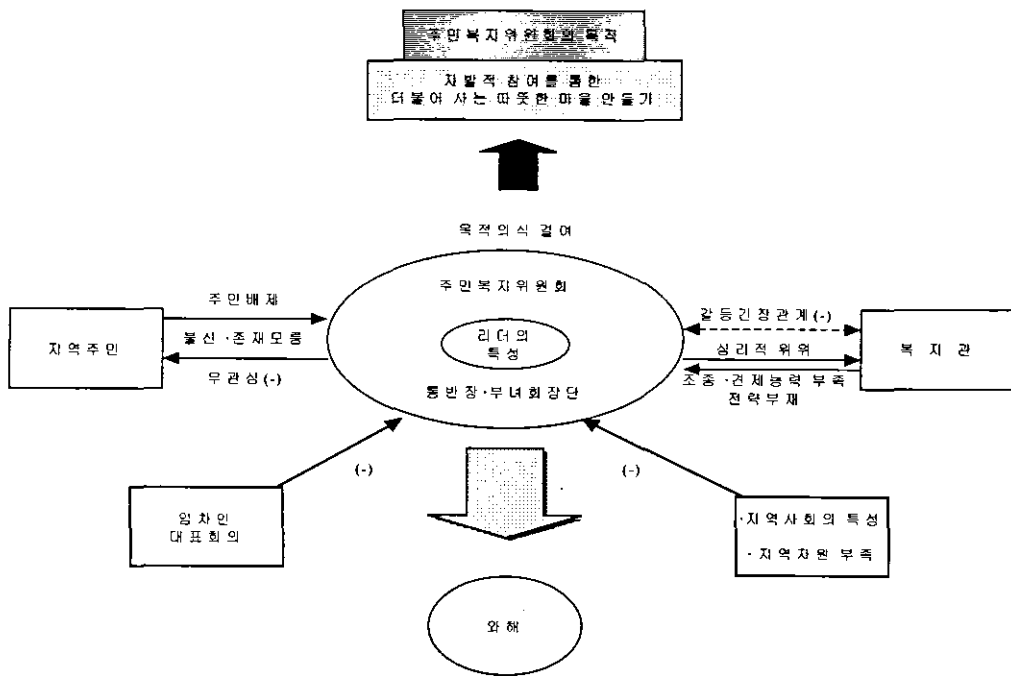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리더는 복지관에 대해 '선택적 의사결정'을 축으로 하여 다양한 행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리더의 행동반응은 복지관의 대응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리더는 복지관에 대해 심리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일에 리더의 협조를 구할 경우 리더는 표면적으로 복지관과 협조적 관계를 취한다. 이를 통해 그는

대지역주민에 대한 취약한 입지기반을 강화하고,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상에서 볼 때 복지관과 리더는 상호 의도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므로 항상적으로 긴장관계를 갖게 된다.

③ 주민복지위원회 성원의 대복지관 인식

한편 주민복지위원회 구성원들의 복지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성원들의 복지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대표의 영향에 기인하는 바 크다. 구성원들이 복지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①복지관으로부터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②지역사회활동은 복지관사업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주민복지위원회의 와해요인을 도해화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3 > 주민복지위원회 와해요인의 상관관계

2)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의 지속적 활동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의 주목적은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해결이지만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태도를 변화시켜 보다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지킴이는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서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는 청소년지킴이 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청소년지킴이봉사단원의 봉사정신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은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활동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대가없는 자원봉사활동을 축으로 하는 지역사회활동은 초기에는 강한 목적의식과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활동에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의식과 동기가 희박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청소년지킴이봉사단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칭찬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민화합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지가 초기의 봉사활동 동기를 지속시키고 조직성원간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원의 강한 동기과 활동의지는 조직이 갖고 있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조직성원의 목적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2) 가시적인 활동성과

청소년지킴이활동은 청소년문제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안정감을 제공해준다. 청소년지킴이활동을 전개한 이후 나타난 효과로는 ①활동에 참여한 성원들의 긍정적인 변화 ②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의 완화 ③지역주민의 생활태도 변화 ④외부의 인식변화⁵⁾ 등을 들 수 있다.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줌으로써 활동의욕을 강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킴이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

4) 청소년 선도와 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조직을 형성하여 활동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본 수서지역의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이 최초이다. 이에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서울시에서 이 활동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를 밝힌 바 있다.

5)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의 활동성과에 대해 파출소에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을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문제에 대한 공감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보여지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비행이다.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사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의 하나는 지역환경이 자녀 교육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어른들의 모델이 되지 못하는 생활 태도, 폭력, 싸움, 무질서 등 비교육적 생활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빈곤문화를 습득하게 한다. 자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없는 지역사회 환경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녀교육과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청소년 지킴이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비행예방과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청소년선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4) 조직성원간의 응집력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은 지역사회내에서 활동해오고 있던 청년회 소속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청년회는 전에도 주민들을 위하여 투쟁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장학금 지급, 알콜중독자를 위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연결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식적·비공식적인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 단원 상호간에는 기존의 청년회활동을 통해서 상호신뢰와 응집력이 형성되어 있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 단원들간의 상호신뢰와 결속력은 청년회 회장인 단장의 리더십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지도자에 신뢰와 성원 상호간의 강한 유대감 및 청소년지킴이봉사활동의 목적에 대한 일치된 마음과 확고한 신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활동임에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활동에 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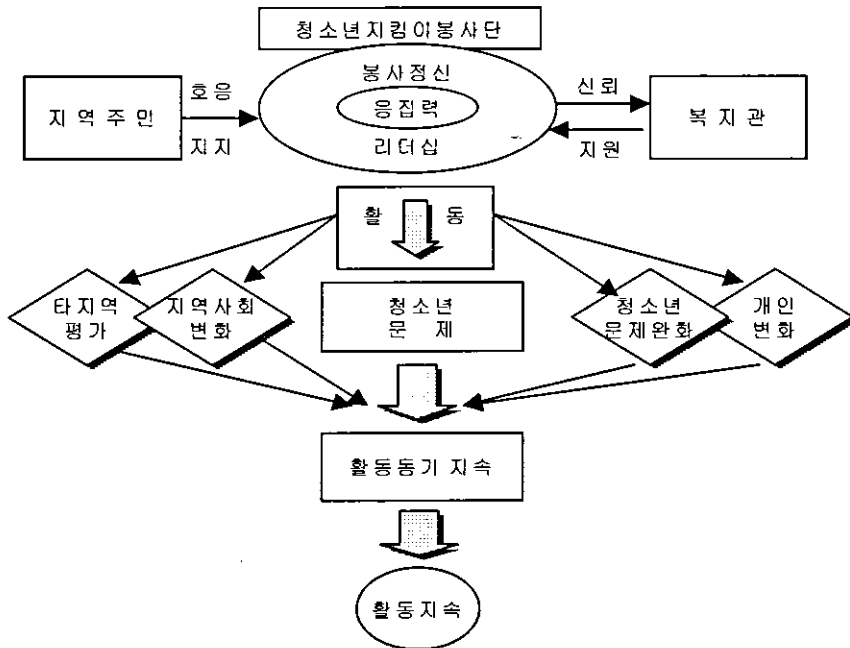
(5) 복지관과의 공조적 관계 형성

청소년지킴이봉사단과 복지관과의 관계는 복지관과 주민복지위원회와의 관계처럼 긴장갈등 관계나 상호불신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조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복지관측에서는 청소년지킴이봉사단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의 활동상의 문제점과 차후의 활동방향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청소년지킴이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킴이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은 활동에 대해 복지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복지관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복지관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복지관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조직으로서 복지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나 활동주체로서의 청소년지킴이봉사단과 측면에서 물적·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라는 구도를 그리고 있다.

주민복지위원회의 경우와는 달리 주민주체의 조직인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은 복지관 및 주민과의 관계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가 활동지속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환류작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 그림 4 > 주민주체형 조직의 활동지속요인의 환류도

3) 지역사회 대상의 조직활동의 한계

지역사회조직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의 지역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지역사회 주민의 경제력은 매우 낮으며 타지역에 비해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에서 조직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청소년지킴이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직활동의 한계는 ①소수인원에 의한 활동 ②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원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지킴이봉사단의 경우 현재까지는 소수인원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활동을 해왔으나 이러한 상태로 장기적인 활동은 무리이다. 지역사회활동이므로 폭넓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체 지역사회 주민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관, 다른 주민조직,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와 폭넓은 관계망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한 조직만의 활동으로 그치기보다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정조직이 주체가 되어 활동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하여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인력보충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지킴이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활동하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활동은 불가능하다.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 주민조직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역 특성상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관에서는 외부 후원자를 개발하여 연계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과제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개입의 초점은 그 실천 범위가 어떠한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life)에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본적으로 요구받는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조직화사업 역시 그 지향하는 목적은 지역주민 개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있다.

이미 분석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복지관의 주민조직화사업이 주민 개인의 생활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명백한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복지관의 주민조직화사업 노력은 무산되었다. 그 이유로는 (1)주민의 '생활'요구에 대한 과학적 실증조사의 미흡 (2)목적전치현상 (3)주민들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4)리더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1) 주민의 '생활'요구에 대한 조사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자는 이 점의 실행에 대해 간과하였다. 객관적인 주민생활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민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노력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주민생활요구에 대한 조사는 분석결과 그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으나 조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목적전치현상은 주민조직화사업에서 발견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즉 실무자들의 '우리마를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주민조직화사업을 이용한 생활의 질 향상으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조직화사업'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전치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로 인해 주민조직화사업은 마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모임으로 전락되어 복지관은 시종 극히 제한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언행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주민복지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되었다.

(3) 주민조직화사업에 대한 주민들로부터의 외면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민의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주민조직화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그것의 존재를 알리고, 그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조직화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복지관이나 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직의 공익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하였다.

한편 (4) 리더는 주민조직을 안내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리더가 주민복리를 위한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비창조적이며 자기이익에 크게 얽매이게 될 때 주민조직은 와해되기 쉽다. 복지관 역시 덕성과 이타적 인성, 그리고 창의성을 고루 갖춘 적합한 리더를 찾지 못하여 상당기간동안 주민조직화사업을 둘러싼 혼란과 에너지를 소모하여 왔다. 앞으로도 리더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은 앞으로의 주민조직화사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

다. 따라서 복지관은 이상의 4가지 과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찾기보다는 업무영역의 폭을 좁혀서 지역현안이 되는 단선적인 문제에 집중적인 자원과 시간을 투자한다.

둘째, 재가복지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은 주민복지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복지관매개형 주민조직의 성원은 가능한 다양한 인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익보다는 주민복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을 우선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복지관에서는 주민복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전개할 수 있는 조직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현(1994). 지역사회복지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호(1997). 자원복지활동의 활성화방법. 학문사.
- 김종해(1995).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영 외(2000).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심재호(2001). 2000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의 의의와 결과. (미간행).
- 이미윤(2000). 영구임대주택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중(1994).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무성(1997).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 석(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지양진(1997). 저소득층 지역사회 접근론.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일섭·류진석(1997).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종혁(2000). 영구임대아파트지역의 '우리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연구. 산업복지 전문직의

현황과 전망.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창호(1980). 지역사회개발행정론. 삼영사.

阿部志郎(1993). 小地域福祉活動の原點. 全國社會福祉協議會.

英木五郎(1981). 地域福祉の展開と方法. 史創社.

岡村重夫(1974). 地域福祉論. 光生館.

西田芳正(1995). コミュニテの可能性. 自治型地域福祉の展開(福祉田 紀久恵 編著). 法律文化社.

(www.dosi.or.kr)

Arthur Dunham(1970). *The New Community Organization*.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Jack Rothman(1995). *Approaches to Community Intervention in Strategies of Community Intervention*(5th). F.E.Peacock Publishers. Inc.

M.O.Weil & D.N.Gamble(1995:a). *Community Practice Models*.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_____ (1995:b). *Community Participation*.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Shulamit Ramon(1991). *Beyond Community Care: Normalization and Integration Work* Macmillan.